



“시원하게... 파도야 놀자” 지난 31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나리아제도에서 열린 세계윈드서핑 및 카이트서프 챔피언십 대회 슬라럼 경기에서 세계 1위 프랑스의 안톤 알뷰(오른쪽)가 빠르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 무너진 KIA 마운드, 직구가 살아야 살아남는다



임기영



윤석민



김윤동

직구가 살아야 마운드에서 살아남는다. KIA 타이거즈 임기영은 지난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부활투를 선보였다.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왔던 임기영은 이날 6.1이닝을 3피안타 2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시즌 6승에 성공했다. 임기영은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3회까지 봉쇄하면서 슬라이더와 커브로 타이밍을 뺏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겨두었던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상대를 혼돈에 빠뜨리는 등 모처럼 기교파다운 포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변화구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승리투수가 된 임기영. 그 뒤에는 직구가 있었다. 임기영은 “2군에서 경기를 하면서 직구에 신경을 썼다. 직구가 되어야 변화구 승부도 할 수 있다. 직구가 안 되니까 체인지업이 공략당했다. 역시로 직구만 던지면서 감을 잡고, 자신감을 찾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임기영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38km에 머물렀지만 구위와 자신감이 살아나면서 손쉽게 이닝들을 넘길 수 있었다. 이날 마지막 9회를 탈삼진 3개로 장식하면서 시즌 6세이브에 성공한 윤석민의 부활투에도 직구가 있다. 초반 140km 초반대에 머물던 직구 스피드는 중반까지 올랐다. 구위

직구 힘 실려야 변화구 승부 유리  
임기영 복귀 후 부활투... 시즌 6승  
윤석민 구속 꾸준히 상승해 부활  
김윤동 동료들이 뽑은 직구왕

도 좋아졌지만 윤석민은 ‘괘적’을 비결로 꼽는다. 윤석민은 “던지다 보니 투구 밸런스가 좋아져서 스피드가 올랐다. 하지만 스피드보다는 궤적이 좋아진 부분이 의미 있다. 처음에는 팔이 내려와서 직구가 말려서 들어갔다. 손목 각도로 내려와서 직구 궤적이 좋지 못했다. 각도에 신경을 쓰면서 궤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팜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특급’ 윤석민의 반전에도 결국은 직구가 있었다. KBO리그에서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는 한승혁도 ‘직구의 힘’을 이야기한다. 변화구 장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던 한승혁은 올 시즌 주로 구사했던 포크볼에 커브와 슬라이더를 결합해서 선발로 변신했다. 변화구로 입지를 넓혔지

만 직구가 결국은 답이라는 게 한승혁의 생각이다. 한승혁은 “직구는 투수의 기본이다. 나는 직구 이미지가 강한 선수라서 아무리 변화구를 많이 던져도 상대가 직구를 겨냥하고 들어온다. 직구 승부를 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 또 변화구로만 승부를 할 수 없다. 변화구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직구’하면 우선 떠오르는 한승혁이 뽑은 팀 내 최고 직구는 김윤동. 유승철과 문경찬의 직구도 탐이 난다. 한승혁은 “김윤동은 워낙 직구가 좋은 선수다. 빠르고 힘 있다. 유승철과 문경찬은 스피드에 비해 직구 힘이 좋다. 회전을 잘 주는 선수들이다. 타점도 높고 손목을 위로 세운 상태로 공을 누르니까 힘있게 일직선으로 들어간다”며 “나는 힘이 들어가면 손목이 틀어져서 역회전이 먹기도 한다. 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던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기준은 움직임으로 승부하는 직구다. 흔히 말하는 ‘볼끝이 지지분하다’로 표현되는 직구다. 한승혁은 “괘적볼을 하다 보면 공 움직임이 좋아서 얼굴에 맞을 것 같다”며 임기준을 언급했다. 불펜 포수 최규상도 “직구 자체로는 김윤동의 직구가 최고다. 회전이 좋다. 임기준의 직구는 잡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오승환, 연투에도 철벽

세이트루이스전, 8회말 1사 만루 등판 무실점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이적 후 첫 연투에서 안정감을 뽐내며 연투에도 강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오승환은 1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탐이 6-1로 앞선 8회말 1사 만루에서 등판했다. 7회 말까지 단 2안타만을 허용하며 호투하던 선발 존 그레이가 안타, 볼넷, 안타로 1사 만루의 위기에 몰리자 콜로라도 벤치는 오승환을 호출했다. 전날 공 17개로 1:1이닝을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오승환은 지난달 27일 콜로라도 이적 후 첫 연투에 나섰다. ‘돌부처’는 연투에도 끄떡없었다. 오승환은 첫 타자 맷 팬터를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처리하고 실점과 아웃 카운트 1개를 교환했다. 다음 타자 아디에르 몰리나에게 던진 초구는 포수 머리 위로 빠져나가는 폭투가 됐다. 공이 뒤편의 벽에 맞고 바로 튀어나왔고, 공을 잡은 포수 톱 머피는 빠르게 3루로 뿌렸다. 하지만 악송구가 되면서 2루 주자 텍스터 파울러가 홈에 들어왔다. 오승환은 몰리나를 2루수 앞 땅볼로 처리하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0.2이닝을 무피안타 무자책으로 마친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2.55에서 2.52로 낮췄다. 위기를 넘긴 콜로라도는 9회말 마무리 웨이드 데이비스를 내세워 6-3 승리를 지켜냈다. 오승환은 시즌 15번째 홀드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복귀 ‘카운트다운’

내일 실전 피칭...빠르면 이달 중순 메이저리그 복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드디어 실전 피칭에 나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링팅 기사는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의 재활 등판 일정을 소개했다. 류현진은 구단 산하 상위 싱글A 란초쿠카몽가 웨이크스 유니폼을 입고 3일 오전 11시 5분에 열리는 레이크 엘시노 스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과 홈경기에서 등판해 3-4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그동안 애리조나에 있는 구단 훈련 시설에서 재활하며 두 차례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화했다. 앞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은 적어도 네 차례의 재활 등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현진이 재활 등판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경우 이달 중순 이후 메이저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6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2.12를 올리며 전성기 못지않은 구위를 뽐냈다. 하지만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2회말 왼쪽 사타구니 근육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류현진이 복귀하더라도 다저스의 선발진의 한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 시즌 다시 월드시리즈 정상에 도전하는 다저스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특급 내야수 매치 마차도를 전적 영입한 데 이어 장타력을 갖춘 2루수 브라이언 도저와 구원 투수 존 엑스퍼드를 각각 트레이드로 데려오며 우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 덕아웃 T 특특

▲못하고 있어서 비결이 없어요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KIA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지난 31일 긴급이사회를 거쳐 7월 31~8월 1일 프로야구 경기 취소 또는 경기 시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KBO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는 4:5일에 열리는 K리그 1·2전 경기의 킥 오프 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하는 등 폭염이 프로 스포츠계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부진 때문에 더위를 느낄 틈도 없다는 이가 있었다. 1일 훈련이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여름철 체력 관리 비결에 대해 질문을 받은 베테랑 정성훈은 “야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한 틈도 없다. 비결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보탬이 되고 싶어요 = “말을 야기겠다”는 팀 연패 탈출

## 정성훈 “야구 안되니 더울 틈도 없어요”

의 주인공. 나지완은 지난 3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6회말 무사 1·2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며 4-1 승리를 이끌었다. 앞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 2루타를 터트렸던 나지완은 모처럼 멀티히트 경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좋은 활약에도 나지완은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사양했다. 올 시즌 부족하게 많은 만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나지완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헛터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 헛터의 허리 상태에 따라서 KIA 선발진 운영이 달라진다. KIA 선발진에 부상과 부

진이라는 변수가 걸렸다. 다행히 부진했던 임기영이 지난 31일 복귀전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헛터가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상황이다. 1일 임창용에 이어 2일 한승혁으로 선발진을 운영한 KIA는 3일에는 2연전 일정에 앞서 휴식일을 보낸다. 그리고 4일에는 양현종이 투입될 예정. 하지만 남은 한 경기 선발은 미정이다. 김기태 감독은 1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헛터의 상황을 봐서 임기영의 투입 시점을 정하겠다. 일요일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로 미뤄 화요일, 일요일 두 경기를 소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